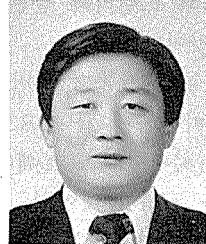


松下電器産業의 80年代 経営戦略

姜 貞 錫
韓國産業銀行 課長



80年代에 접어들면서 美国과 日本 등 선진제국 간에는 自動車, 電子製品, 半導体 등 여러 産業分野에서 그 競争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日本의 電子製品은 그 原泉技術에 있어서는 美国 등 欧美 先進国에 뒤졌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技術力으로 VTR 등 家電製品 分野에서는 世界市場을 휩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70年代에 電子工業의 팔목 할만한 成長이 이루어 졌고 또 80年代에도 우리나라의 高度先進産業社會의 実現, 輸出 증대의 지속에 있어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電子工業에 부여된 임무이다.

그러나 80年代에는 좀더 高級製品, 技術製品, 産業用製品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企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때 우리보다 한 발 앞선 日本의 有力한 企業의 80年代 経営戦略을 살펴 봄으로서 우리 企業의 향후 投資方向, 製品開発方向, 技術戰略方向, 마케팅 등 제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本稿를 소개한다.

〈編輯者 託〉

1. 발군의 企業力

松上電器産業은 1918年 3月 松下幸之助, 現取締役相談役에 의하여 「松下電氣器具製作所」로設立되었고 그로부터 60餘年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日本에서 뿐만아니라 世界的으로 군지의 대규모 우량企業으로 成長했다.

현재 松下電器産業은 国内從業員 약 6万 3千名(일부관련회사 포함) 매출액은 速結基準으로 81年度에 3조 4,513 억엔으로 日本의 製造業 売出額 제 3 회 (1位, 日立, 2位 新日鉄), 경영이익율 第 1位라는 日本의 代表的 企業이 되었다.

松下電器産業의 成長과정을 크게 셋으로 区分하여 経営者側面에서 교훈이 될만한 것을 例示해보면, 1段階로는 創業에서 終戰까지의 단계

로써 그동안 製品開発 등 多数의 特징적인 것이 있겠으나 1929年 세계적 대공황으로 日本電機業界의 다수 업계가 도산하는 등 어려운 때를 맞이 하여 그때 入院中에 있던 辛之助씨는 「生産은 半減시키나 従業員은 한사람도 해고할 수 없고 紙料도 전액 支給한다. 그대신 社員은 휴일을 반납하고 在庫品 판매에全力을 다한다」라고 방침을 밝힘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第 2段階로는 1945年부터 1950년의 戰後 苦難時代이고 第 3段階로는 1950年以後 韓國動亂을 결정적인 계기로 한 飛躍的 發展時代이다. 이 時代에는 1951年 1月 辛之助社長에 의해 첫회의 欧美 시찰이 行하여졌고 그 시찰에 따라 日本에서의 家電製品 보급에 確信을 갖게 됨과 同時に 電子技術에 関하여 海外에

서 배워야 할 것이 하다 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 후 1964年以後의 不況에 크게 영향을 받아 松下電器 역시 영업이 크게 저조하게되자 松下辛之助 会長이 営業本部長 代行에 취임하여 진두 지휘를 한바 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松下電器產業은 成長性, 収益力, 安定性 등 綜合的인 企業力은 크게 우월함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우월성을 数值化 하기에는 지면상 어렵고 우선 발군의 企業力의 배경만을 살펴본다.

이러한 우월성은 먼저 生產 販売力에 있을 것이다. 「産業人の 使命은 빈핍의 克服에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社会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도 生產은 계속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를 증진시키는 데 産業人の 使命이 있다. 풍부한 生產量으로 수돗물과 같이 값싼 製品을 供給하는 것이 産業人の 진짜 使命이다」라는 1932年5月에 辛之助씨에 의해 發表된 유명한 「水道哲学」으로 松下의 生產 販売에 대한 기본적인 方向이 明確히 表現되고 있다. 또 家電製品의 市場占有率达到 고루 높은 편인데 이는 創業이래 신뢰 관계가 강한 系列 판매점의 존재에 있으며 이것이 강력한 판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松下는 이러한 生產. 販売力이 강하다는 점以外에도 그의 技術開発力도 定評이 나있다. 현재 松下그룹에는 직접 製品의 研究開発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4,000名으로 生產技術, 品質管理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합하면 1萬名 가까이 된다. 研究開發費도 每年度 売上高의 4% 정도를 投資하고 75年度에 511億엔, 81年度에는 1,275億엔으로 증가 하였다.

2. AV中心의 綜合電子企業으로 成長

松下는 최근에 들어 經營戰略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고 풍부한 經營資源을 가지고 제3의 成長期을 맞이하고 있다.

1979年7月 松下 社長 취임후 3個年으로 立集된 中期計酬은 中期戰略에 입각한 經營戰略, 商品開發戰略에 의한 變化에 대응, 보다 강한

企業체질을 목표로 한 것이다. 또 1990年代를 향한 長期計酬을 主導하고 있는 바 이러한 中長期 비전을 基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經營戰略을 전개 推進하고 있다.

그것은 (1)大型 成長商品인 VTR의 離陸으로서 量產体制 確立, 新商品 開發로 収益의 主軸, 포스트 C/TV 出現으로 企業 収益에 자신, (2) 組織活性화와 人材教育으로서 社內 人事交流의 活性化와 輕은층의 登用, 事業部制가 안고 있는 디메리트의 적극배제로 綜合力의 強化, (3) 研究開發의 強化을 78年 4月 中央研究所를 포함한 研究開發 組織体制에 이어 80年 3月 技術本部를 供給指向의 技術本部와 需要指向의 技術本部로 分割, (4) 設備投資의 拡大 VTR, 半導体, 研究開發 등 戰略部門에 적극적인 投資, (5) 產機의 拡大, 80年 8月 事務用機器本部의 新設, 81年 7月 Office Automation Mechatronics 등의 강화를 위한 5個의 新프로젝트팀 形成, (6) 国内 販売会社의 改編～流通合理化, 系列店 強化를 위한 販売 회사 234社를 79年 말부터 81年中에 약 110社로 改編 (7) 國際戰略의 強化 등이다.

한편 松下의 事業分野는 AV(Audio and Visual) 中心으로 폭이 넓고, 売上 内訳으로는 VTR, TV 등 映像機器 23%, 電氣冷藏庫, 에어콘 등 家庭電化機器 24%,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 등 音響機器 14% 등 소위 家電部門이 売上高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通信計測, 事務機器 등 情報産業機器 15%, 半導体, 電子部品 13%, 電池, 住設機器 7%, 其他 4%로 되어 있으며 輸出 比率은 25%이다.

AV를 中心으로해서 높은 經營効率을 과시한 松下經營은 組識体制, 販売力, 生產技術, 開發力, 여기에 財務力이라는 풍부한 經營資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폭넓은 事業分野는 1933年에 채용한 事業本部制下에 41個 事業部로 分權管理되고 있다. 이 事業部制는 지금까지의 松下經營시스템의 根幹의 하나로 売出營業 利益率로 A～D의 4等級으로 区分되고 自主 책임 경영에 의한 収益 의식의 철저화가 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컬러TV

28%, VTR 28%, 라디오 카세트 22%, 電氣冷藏庫 26%, 에어콘 30%로主力商品에서 높은 生産 점유율을 과시하게 되었고 電氣 소제기, 전기 다리미 등 대부분의 家電商品群에서 上位의 地位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拔群의 販売力, 生産技術開發力에 있는 것이다. 松下의 販売体制는 專賣率 70% 미만 50% 以上的 내셔널 店会店 약 2.6万店이 있고 国内電氣店의 약 60%를 커버하고 있다.

한편 松下電器의 研究開發 体制는 1952年 設立한 中央研究所 아래 材料, 에너지變換, 半導体, 電子機器, 照明, 情報처리의 6個의 研究所를 가진 技術本部, 無線 音響, 電化의 3個研究所를 가진 開發本部, 各事業部의 研究開發部, 그룹 各社의 研究所와 함께 新技術, 新商品 開發을 推進하고 있고 또 新商品의 量產化, 工場自動化에는 生產技術研究所가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것과 상응하여 自己資本化率 50%, 現金流動額 5.349엔이라는 財務力이 있다. 複合技術時代를 맞아 단기적 収益 책임을 지고 있는 事業部制의 단점의 相對的 弱體化 등 變革期에 있어, 松下는 풍부한 経営資源을 잘 살펴가면서 적극적인 経営戰略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松下의 成長을主力商品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1964年 以前까지는 黑白 TV, 電氣冷藏庫, 電氣洗濯機의 「三種의 神器」에 의한 家電器의 高成長期로 이 時期에 系列店의 形成, 家電商品의 Full line화, 研究開發의 專門細分化 등 今日의 基礎가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는 75년까지로 大衆消費社會 도래로 컬러TV, 승용차, Cooler가 「3C」로 해서 보급되었다. 특히 컬러TV는 松下의 収益成長에 큰 역할을 했었다. 후반에는 컬러TV의 성숙한 海外環境의 격변으로 停滯期를 맞았다. 松下는 ①스트레오, 테레카 등 음향기기 強化로 商品의 多樣化 추진, ②半導体 中心으로 高附加 가치상품 개발을 위한研

究開發 強化 ③生産의 自動化, 合理化 등 体质強化 등을 추진했다. 1976年에 들어와 國際市場의 拡大, 成長商品 VTR의 離陸 등 第2의 產業 칠강화 등과 어울려 제3의 収入擴大期에 들어갔다. 신성장 分野에의 參入과 더불어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고 있다.

3. 80年代 新成長戰略의 展開

80年代 중반이후의 成長을 위한 포석으로 松下그룹에 걸쳐 새로운 成長戰略을 취하고 있다. 이는 7 가지 연구테마로 요약 될 수 있다.

① Automation: 自動化分野로 해서 Home Automation, Office Automation이 있다.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의 情報形能의 变換은 黑白映象時代, 컬러映象時代를 거쳐 現在는 映像情報의 記錄, 創造, 映象과 청각의 情報一体化의 第3世代에 들어가고 있다. 90年代에는 TV를 情報모니터로 한 家庭情報化時代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미 “쿄틴 시스템(文字도형 情報ネット)” “하이오비즈(雙方向 TV 시스템) 등 情報시스템이 實驗中이고 松下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 계획하고 있다.

각 家庭에 사용되고 있는 TV, VTR, 스테레오 등 AV시스템에서 수위의 占有率을 자랑할 뿐 아니라 情報化時代에 있어서도 松下는 수위를 占할 것이다. 또 다음의 OA도 이러한 컴퓨터, 홈팩시밀리의 展用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松下그룹의 OA로의 이전에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팩시밀리로 市場占有 rate 33%의 松下電送機器 정도로 전체로서는 시작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松下의 강점은 映像信号, 팩스信号, 電氣信号에 관한 技術에 있어 이러한 것에 기초를 두어 OA의 展開에 착수하고 있다.

松下는 80年 8月에 事務機器事業部를 新設, PPC를 현재 月產 4,000台, 82年 4月에는 宇都富工場 建設로 月產 1万台 体制가 확립되었다. 미국의 섹숀, 欧州의 올림피아의 OEM 수출이 약 85%를 점하고 있으나 年內에는 中高速機가 추가되어 서서히 自社브랜드(파나소닉)

比率도 상승할 것이다. 또 오피스(Office-Computer), 퍼스컴(Personal Computer), 워드프로세서도 松下通信工業, 九州松下電器, 파나웨콤으로부터 新技術開発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松下는 1964년에 大型컴퓨터로부터 벗어 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축적이 커다란 課題였다. 그러나 81年 8月에 技術本部에 마이컴의 소프트 開発을 主目的으로 設立한 情報論理研究 所나 시스템의 소프트 開發을 태마로 하고 있는 시스템 開發研究센터에 의한 進展, AV로 배양한 노우하우는 情報 단말機器로서 展開性을 높혔다. 81년의 OA機器 売出額은 팩시밀리, PPC 중심으로 約 600億円으로 추정되나 85年에는 2,500~2,000億円 규모에 달할 것이다.

② Mechatronics : 업계 首位의 松下 生産技術力은 生産技術本部에 의한 生産機械의 自社開発 工程自動化 등으로 지탱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自動化機械, 로보트를 적극적으로 外販한다는 것이 메카트로닉스 전략인 것이다.

이에 수년전부터 업계의 首位인 電子部品“自動挿入機”파나셋-트”를 外販하고 있고 뜨 80年 9月에는 松下産業機械가 開發한 多閏節型 아크용접 로보트 “파나로보”도 受注活動中에 있다. 자동 나사조이기, 반송, 도장, 조립 등의 시스템販売도 겨냥하고 있어 需要者의 요구를 숙지하고 있는 強点이 있다는 점이다.

③ 에너지 : 에너지변환研究所, 松下精工, 松下電池工業을 軸으로 太陽電池, 쓸라, 바이오메스 등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80年 5月에 설립한 솔라시스템事業部가 있으나 채산면에서는 아직 어려운 현상이며 民生에의 응용으로서 太陽電池, 住設로서의 쓸라 機器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장기적인 테마이다.

④ Opt electronics : 이는 光通信, 半導体레제의 기초技術로 카일렉트로닉스, CATV, 情報處理機器, 디지털오디오 등 응용범위가 넓다. 松下通信工業에서 光通信, 松下電子工業에서 半導体의 研究開発을 추진중에 있으나 81年 5月에 그룹전체로의 연장을 모색 효율적인 研究開

發体制 確立을 위해 光技術추진센터를 설립했다. AV에 (Communication)을 가한 AVC 시스템이나 地域情報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松下그룹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技術인 것이다.

松下그룹의 7大研究開発 테마

開 發 테 마	具体的応用分野	主担当研究所等
① Home Automation	防犯, 防災, 壁掛TV, 카메라 一体型 VTR, 省エネルギー機器	電子機器研究所 (中研)
② Office Automation	팩시미리, PPC, 워드프로세서, Of-Com, Pers-Com 事務機器	無線研究所(技術本部 部), 情報論理研究所(中研), 松下電送機器, 松下通信工業, 九州松下電器
③ Mechatronics	産業用ロボット 自動機, 省力機器	生産技術研究所 松下産業機器, 松下技研
④ Opt Electronics	CA-TV, Car-electronics 情報処理機器, 半導体레저	光技術推進センター 松下電子工業
⑤ Energy	太陽電池, 소리 機器, 바이오メス 風力発電	에너지-變換研究所 (中研), 松下電工, 松下精工, 松下電池工業
⑥ 半導体	半導体레저, 마이 콤, 메모리	半導体研究所(中研) 松下電池工業
⑦ 素 材	基礎材料(磁性 壓電, 세라믹 등) 材料技術(薄膜化, 厚膜化, 微粒子化 等)	材料研究所(中研), 松下電子部品, 松下電子工業

資料 : NRI

⑤ 半導体, 素材 : 以上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탱해주는 것으로서 半導体와 素材가 있다. 半導体生産을 담당한 松下電子 產業은 個別 半導体에서 市場 占有率 12%, IC에서 6%, 半導体合計로 9%를 占하는 大企業이다. 1957年 カーマ늄트랜지스터 生産으로 出発한 半導体사업부는 범용 컴퓨터용 半導体를 製造하지 않기에 產業用은 약 30%로 다른 大메이커의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이나 가정용에서는 매우 강하다. 松下그룹 자체소비는 약 45%로서 外販 확대에 따라 하하는 경향에 있다.

松下그룹의 半導体研究開發体制는 松下電子工業의 半導体事業本部와 中央研究所의 半導体研究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중기적 연구개발 테마는 化合物半導体의 開發, 半導体 레자의 量產化, 마이컴, 메모리의 강화 등이다. 松下그룹의 半導体에의 투자는 79년까지는 50億円 전후였으나 80년에는 増產投資도 있어 200億円으로 急增하였고 81년에도 그와 비슷한 규모였다.

한편 素材開発은 世界에서도 首位를 달리고 있다. 그 원인은 ① 松下電氣工業, 松下電子部品에서 素材에 제일 가까운 部品을 生産하고 ② 研究員 약 300名을 포함한 材料研究所를 갖고 있는 것 등이다. 材料研究所는 電子部品을 재료면에서 개선하는 基礎材料, 재료를 部品화, 回路化 등 高集約化하는 材料技術 등이 있어 松下電子工業, 松下電子部品을 지탱해 주고 있다.

中期的으로도 年率 25% 成長예상의 半導体, 素材가 안고있는 역할은 가정용 產業用을 불문하고 매우 높다. 化合物 半導体를 중심으로 한 技術開発, 業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半導体레자의 量產化, 여기에 세라믹, 磁性材料 등의 강한 素材開発力은 松下그룹의 中期展開力を 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된다.

또하나 80年代 새로운 企業戰略으로는 國際化戰略의 강화이다. 松下의 中期計画, 長期비전으로서 高技術商品開発, 단, 수출商品의 수출호전 予想에 의한 輸出增大, 海外生產의 확대 등 國際化戰略의 강화, 확충이 커다란 테마이다.

松下그룹의 國際化戰略의 歷史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黎明期인 第1期, 欧州販売 거점의 확충, 개발도상국의 生產 거점의增设과 이에따른 판매회사를 設立 추진한 第2期, 開發途上國 중심의 海外生產으로부터 美国, 英国 등 先進國으로의 진출, 先進國으로의 再輸出을 포함한 로지스틱 戰略拠点으로서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을 確立한 第3期, 여기에 80年代에 들

어와 종합적인 國際化 戰略의 展開期를 맞이한 第4期 등이다.

松下그룹의 國際化 戰略의 体制는 松下의 각事業部, 海外事業 담당과 함께 39개의 海外 生產 子会社가 있고, 32개의 海外 판매회사(北美地域除外)는 松下電氣貿易이 出資, 관리하고 있다. 39개의 海外 生產会社는 총 종업원 3만 1,000명 日本으로부터 590명, 81年 生產合計 18.1億달러에 달하였다. 32개의 販売会社는 총 종업원 2,800명 (日本으로부터의 165名)이다. 또 81年 2月에는 海外事業의 통합적인 方針, 戰略을立案, 추진하는 海外총괄 本部를 신설했다.

그런데 80年代의 國際化 戰略의 요점은 다음 3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美國市場에서의 製品販売 強化, 확충이다. 현재 아메리카 松下電器와 더불어 판매회사로 Panasonic Company와 Quasar Company, 生產으로 파나소닉, 쿼사의 両 브랜드를 生產하는 아메리카松下電器(Mataushita Industrial Company)와 精工テネシー(Tennessee Fan Company)가 있다. 아메리카 松下電器의 매상고의 70~80%가 컬러 TV, VTR, 音響機器 등 民生用機器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 74年 Quasar壳受持 占有率 10%를 보였던 컬러TV 쉐어 확대 ② PPC 중심의 事務機器, 주요가전제품 판매루트의 확대, ③ 아메리카 松下電業의 商品競爭力 강화이다.

둘째, 欧州의 生產거점 拓充으로 현재 3拠点이 있으나 中期의으로는 무역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는 만큼 VTR을 포함한 商品群의 生產拠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綜合力의 結集이다. 81年度 輸出 1조円을 달성한 松下電氣貿易, 生產相當의 각 사업부, 海外總括本부가 한덩어리가 되어 商品開発, 기획, 마케팅戰略 전개 등을 해나가는 일이다.

松下의 家電輸出 占有率은 21%로 日本에서의 家電生產 쉐어 약 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풍부한 資金力を 背景으로 한 綜合力, 製販의 로지스틱戰略의 展開로 서서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4. 尖端技術 主導型의 成長

80年代 松下의 成長成略은 적극적인 研究開発投資에 의한 新성장분야의 개척, 海外市場에 있어서 로지스틱戰略의 전개, 소프트웨어 技術의 축적 등이다. 이를 위하여 松下그룹의 결속력을 높이고 결합력의 발휘가 주요 과제이다.

필립스, RCA라는 欧洲의 경쟁관계의 대기업을 능가하는 수익체질을 구축한 松下는 85年을 向하여 AV시스템을 成長의 원동력으로해서 약진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長期的으로 日立, GE와 나란히 國際企業으로서 전개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新成長分野의 개척에 포석

을 하기 시작했다.

① 풍부한 資金力과 高收益을 示額한 현재의商品群, ② 半導体, 브라운관, 一般電子部品, 素材 등 中枢部品, 材料技術의 우위성, ③ 強力한 판매력과 國際마케팅力이라고 하는 松下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長期的인 전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이다.

AV를 중심으로한 종합엘렉트로닉스 企業으로서 世界의 톱크拉斯에 있는 松下는 적극적인 研究開発 投資에 의한 尖端技術開發을 軸으로 하여 새로운 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